

## “전통문화관 지붕 기와로 바꿔야”

전주시의회 김순정 의원이 전주 전통문화관 지붕을 한옥기와로 바꿔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순정 시의원(비례대표)은 “1000만 관광객을 눈 앞에 둔 한옥마을의 전주 전통문화관 지붕만 콘크리트 지붕으로 남아 전주의 이미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한옥마을과 동화를 위해서도 전주 전통문화관 지붕도 한옥의 맛을 살린 기와로 리모델링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오목대와 치명자산 등지에서 한옥마을을 내려다보면 고풍스런 한옥의 정취를 만끽하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유독 현대식 건물로 설립된 전통문화관 회색 콘크리트 지붕이 고풍스런 한옥마을의 정취를 무너뜨린다”며 전통 한옥의 맛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통문화관 리모델링 필요성을 제기했다.

### 전주시의회 5분 발언

김순정 의원 “콘크리트 지붕으로 이미지 퇴색

한옥마을과 동화 위해서

전통적인 멋 살려야”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개관한 전통문화관은 총 4개 동의 건물로 이뤄져 전통혼례식, 각종 체험, 문화공연, 식사 등의 전통테마 문화체험의 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연간 약 20만 명의 방문객들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 방문기에 꼭 답아야 할 대표적인 체험관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건립한지 14년이 지나 노후



된 화강석 건물의 외형은 여유롭고 멋스러운 전주한옥마을의 정취를 반감시키는 역작용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건립 당시에는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라는 의미를 담은 멋스런 전통문화관의 이미지로 지어졌지만 세월이 흘러 전통의 맛을 살린 고즈넉한 전주한옥마을의 정취가 전주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굳어진 지금은 주변 한옥의 정취를 깨뜨리는 ‘옥에 티’가 되고 있다”며 “콘크리트 회색빛으로 우중충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지붕만이라도 전통 한옥 기와지붕의 디자인으로 리모델링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치명자산으로 이어지는 전주한옥마을의 외연 확장의 중심에 지리한 전통문화관 한옥기와 리모델링은 고풍스런 한옥의 멋과 정취를 확장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옥마을이 인기를 끌면서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는 전통문화관의 한옥기와 리모델링으로 방문객들의 여유 공간 확보는 물론 이미지 개선으로 비용대비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통음식관인 ‘한벼루’와 전통혼례청인 ‘화명원’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돼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노후된 시설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칠 수는 없다 해도 부분적 리모델링 등을 통해 전통문화관이 한옥마을의 얼굴이자 조화된 전통문화공간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대형마트 3사 사상 최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 ‘갑질 횡포’를 부린 대형마트 3사에 사상 최대 규모인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납품 업체에 관측사원 인건비를 전가하고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홈플러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유통업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가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부당한 반품, 납품일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서면계약서 지연 교부 등을 통해 납품업체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마트는 4~16주간 전체 점포 중 40% 이상에서 전허 판매되지 않는 상품 1만6793개(3억8000만원)를 ‘체화제고상품’이라는 명칭으로 반품했다. 또 시즌 상품이 아닌 완구류 제품 1만4922개(약 1억원)도 시즌 상품 명목으로 반품했다.

이마트는 994개 납품업체들과 1058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이 시작된 뒤 서면을 교부하기도 했다.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8억5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롯데마트는 41개 납품업체에 대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판매장려금 61억원을 미리 받았다.

또 96개 납품업체에 대해 2961개 제품(113억원)을 구체적인 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반품했다. 45개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292개 상품(1억8000만원)을 반품기간(시즌종료후 30일 이내)이 지나서 반품하기도 했다.

롯데마트가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사전 약정 없이 245개 납품업체 종업원 855명을 파견받아 자사업무에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 과징금... 기본장려금·부당반품 첫 제재

이번 공정위 제재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6개 TV홈쇼핑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1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의 기본장려금 금지와 부당 반품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행해진 점내 광고 추가부담 등 편법적인 방법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납품업체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인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했다”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 공정위, 홈플러스에 220

### 이마트 10억 등 238억 부과

### 납품업체 ‘갑질 횡포’ 원인

▲홈플러스 납품대금 감액(121억원) 인건비 전가(168억원) 적발... 과징금 220억원

홈플러스는 3개 업체 중 가장 많은 22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관측비용분담금’ 명목으로 121억원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또 지난해와 올해 납품업체 관측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 약 168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10개 업체에 점내광고서비스 추가 판매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에 10억원, 롯데마트에 8억5800만원 과징금

이마트는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로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마트는 풍산점을 개점하면서 94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181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트의 29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24개 납품업체 종업원 24명이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 ▶ 매일 INDEX

3면 청와대, 3당 협치한다더니...

5면 전교조 전일자 직권면직 '이목 집중'

청와대가 협치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실제 행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도교육청의 전교조 미복귀 전일자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가 주목된다.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하지만 황교안 국무총리(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는 그저 침묵만 하고 있다.

## 힘차게 함께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

여야 지도부 모두 합창... 여권도 동참  
황교안 총리·현기환 수석 등은 ‘침묵’

###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여야 지도부가 18일 열린 제36주년 5·18 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에서 논란의 ‘임을위한행진곡’을 모두 불렀다. <관련기사 16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여권 인사들도 이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황교안 국무총리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다.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주관 ‘제36주년 5·18 민주화운동 정

부기념식’에서는 ‘임을위한행진곡’이 제창이 아닌 합창 형식으로 불려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선인들은 한 손에 작은 태극기를 든 채 일어서서 노래를 불렀다.

특히 우상호 원내대표는 태극기를 힘차게 흔드는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다수의 더민주 소속 당선인들도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동참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천정배 공

동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와 당선인들도 동참했다. 안 대표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노래를 따라 불렀으나 박 원내대표는 노래를 부르는 내내 태극기를 흔들었다.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와 당선인도 일어서서 노래를 불렀다. 심 대표와 노 원내대표는 이날 황 총리의 기념사 도중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어 보였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의와 국회의장과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등 여권 인사들도 함께 일어서서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한광욱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정면만을 응시했다.

이날 논란의 중심에 선 박승훈 보건처장은 유족들의 항의를 받고 지정석에 앉지도 못한 채 기념식장에서 쫓겨나야 했다. 그는 “당사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 기념식은 정 부기념식”이라며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제창 불허” 뜻을 굽히지 않았다.

/박용주 기자



e편한세상

### 복합도시의 편리함과 e편한세상이 만나 명품 주거의 기준이 되다!

모든 생활을 한자리에서 누리는 프레스티지 주거명품

### e편한세상 디오션시티

### 5월 20일(금) 모델하우스 오픈

총 854세대 59㎡ 174세대 | 74㎡A 84세대 | 74㎡B 174세대 | 84㎡A 253세대 | 84㎡B 82세대 | 106㎡ 87세대(선용면적 기준)

모델하우스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6번지

분양문의 063) 468-3353

www.samhoapt21.co.kr

www.daelim-apt.co.kr

NAVER e편한세상 디오션시티

DAELIM SAMHO

시행 : 크리아인(주) | 시공 : 대원건설(주), 주식회사 삼호 | 분양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분양권 :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사업, 근린생활시설 | 사업지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6번지(1동) 1동  
\* 본 분양권은 사전에 청약저축이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 당첨 시 청약 당첨금, 주택자금 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당첨자만 청약 당첨금 지급 대상입니다.